

2012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2차 논술 문제지 (인문계열 I)

대학		학 과 (학부 · 계열)		수험 번호		성명	
----	--	------------------	--	----------	--	----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의 수험번호 및 인적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정 사인펜으로 표기하시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써야합니다.(숫자나 수식, 표 등은 예외)
-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가능합니다.
-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내용은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항 별로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 지정된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불가함.



2012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2차
논술 문제지 (인문계열 I)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폭설 속으로 눈부신 속도가 사라진다.

호랑이를 상상하는, 도로 앞에 멈춰 선 고라니의 눈망울이 난폭한 폭설의 저편을 바라본다. 도로의 끝으로 사라지는 속도의 뒤편이 호랑이의 포효처럼 딱딱하게 변진다. 고라니는 눈을 맞으며, 건너야 할 도로의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눈부신 질주, 호랑이의 아득한 포효가 되어 도로 위를 배회한다. 숲을 가로지르는 검고 긴 천적이 하얗게 질린다. 하얗게 질린 도로는 붉게 흐르는 죽음으로 가득 찬다. 질주하는 속도의 궤적을 따라 호랑이의 식욕이 날카롭게 빛난다.

고라니의 발굽이, 가늘게 떨린다.

속도가 죽음을 만드는,

텅 빈 도사림 앞에서

(나) 오늘날 영화에서 특수 효과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필름에 담는 일’이다. 특수효과 기사들이 필름에 담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것인데도 분명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속도이다. 따라서 특수 효과 전문가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속도로 대상을 필름에 담는다. 속도는 영화 장치의 순수한 발명품이다. 특수 효과란 비학술적 용어로 ‘속임수’, 즉 ‘트릭’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조르주 멜리에스는 이렇게 농담하곤 했다. “트릭을 지능적으로 응용하면 초자연적인 것, 상상적인 것, 불가능한 것까지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다니까.” 당시 유력한 영화 제작자들은 멜리에스가 영화를 리얼리즘에서 해방시켰지만 실제로는 리얼리즘을 유지시키는 결과를 끌어내었다고 평가했다. 영화 관객들은 ‘현장의 사실적 주제’를 다루는 영화의 리얼리즘에 싫증을 내던 참이었다. 멜리에스는 한 마디 더 던진다. “나로서는 매우 유감스럽네만 제일 단순한 트릭이 오히려 효과는 엄청나다네!” 멜리에스가 간단하면서도 대중을 즐겁게 했던 트릭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떠올리는 것은 시간과 속도의 비밀을 엿보는 데 매우 유익하다. “어느 날 나는 평상시처럼 파리의 오페라 광장을 찍고 있었어. 늘 사용하던 촬영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었는데, 그게 전혀 뜻밖의 효과를 만들어낸 거야. 영겼던 필름을 풀고 다시 작동하는데 약 1분 정도 흘렀지. 물론 거리의 행인들, 마차들, 자동차들이 자리를 이동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 나중에 사고가 나기 전과 후의 필름을 연결한 편집 테이프를 영사해보니 뜻밖에도 마들렌-바스티유행 마차가 장의차로 변하고 남자들은 여자들이로 변해 있던 말이지. 예술의 새로운 효과인 ‘대체 속임수’, 소위 ‘정지 트릭’을 그 때 발견하게 된 거야. 바로 이틀 후에 나는 처음으로 남자들을 여자들이로 치환하거나 사라지게 하는 트릭 효과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

멜리에스가 말하듯이 기계 장치의 결합으로 인해 생긴 우연이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을 벗어난 상황들을 한 시퀀스* 안에 재창조한 것이다. 멜리에스는 필름에 찍힌 순간들의 유기적인 연속성을 깨뜨리는 힘을 동력 기계에 부여했고, 그러면서 어린이가 폴로 종이 붙이는 놀이를 하듯이 시퀀스들을 다시 재조합하면서 시간의 외관상 단절들을 모두 없앴다. 어느 순간에 발생한 ‘공백’의 간격이 또 다른 예술적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 시퀀스(sequence): 영화에서 몇 개의 관련된 장면들을 모아서 만든 구성단위

(다) 옴 박사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건강하게 지내다가 몇 년 전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다. 그의 후임자가 존에게 얇은 가죽으로 싸서 여러 번 끈으로 묶고 봉인까지 한 소포를 건네주었다. 소포에는 ‘영국 해군 소위 존 프랭클린, 본인 수령’이라고 적혀 있었다. “성경인가 보군요.” 새 교장이 추측했다. 그는 자리에서 앉아 뜯어보라고 권했지만 존은 거절했다. 옴 박사의 글을 혼자 읽고 싶었다. 꾸러미 안에는 두 권의 필사본이 들어 있었다.

긴장되었다. ‘속도를 통한 개인의 탄생.’ 옴 박사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했다. ‘인식 가능한 개별 현상들의 임의의 양에 따라 측정된, 관찰의 완벽성 정도를 통해 구분한 인간의 차이’. 옴 박사가 주장한 차이의 근거는 눈이나 귀의 역학적 성질이 아니라 뇌의 입장이다. 학생 A가 느린 이유는 눈에 떨어진 것을 오래 관찰하기 때문이다. 한번 포착하면 철저하게 탐구하기 위해 상 자체를 정지시키고 뒤따라오는 상들은 지나친다. 세부(細部)를 보자면 머리 전체를 사용해야 하며 다음 세부가 다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느린 사람은 빠른 사건 전개를 기민하게 쫓아갈 수 없다.

옴 박사는 모든 개인의 속도를 기계 장치로 측정하여 각자의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내자고 제안했다. ‘조망(眺望)의 직업’과 ‘세부의 직업’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적시에 그 속도를 측정하면 수많은 무의미한 노력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빠른 아이들과 느린 아이들을 나눠 학급을 만들자고 다음처럼 주장했다.

“각자의 독특한 속도에 따라 빠른 아이들은 시대의 가속화에 몸을 던지는 조망의 직업에서 쓸모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 그 일을 잘 소화해낼 것이고, 마부(馬夫)나 항해사, 국회의원으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느린 아이들에게는 수공업자, 의사, 화가처럼 세부적인 기능을 요구하는 직업이 적합하다. 그들은 점진적인 변화를 가장 잘 쫓아갈 수 있어서 정치인과 같은 빠른 사람들이 이론 일들의 결과를 꼼꼼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의 발달과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성장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생겨난 집단이다. 그 역할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들과 기업활동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있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의 시민운동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시민운동의 방식은 대자보, 팸플릿, 플래카드(placard)를 이용한 정보전달에 기초했고, 옥외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전 신고를

해야만 했다. 그리고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도 조직체계나 대표자 회의, 그리고 소규모 분과회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에는 시민운동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회원을 모은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시위를 하기보다는 전자우편 보내기, 여러 사람이 계속 ‘새로 고침’ 단추를 눌러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가상연좌시위, 홈페이지에 막대 광고 달기 등의 온라인 시위 방법을 쓴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일반화되면서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힘도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제는 정부나 언론, 기업에서도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2000년 4월에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산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불매 운동을 펼쳐 자동차회사의 항복을 받아 낸 일도 있었다. 예전에는 자동차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상품의 경우에 소비자의 의견이 무시되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한 소비자의 불만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또 빠르게 전문지식을 서로 나누면서 ‘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마)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에서 서울까지 40 km를 1시간 걸려서 움직였다고 하면 빠르기를 나타내는 40 km/h는 평균속력의 의미를 갖는다. 평균속력에는 빨간 신호등 때문에 잠시 멈추어 있었던 정보와 때때로 100 km/h 이상으로 과속을 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과속은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안전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주행속력에 따른 연비의 관계표를 보면 보통의 승용차는 연비가 120 km/h에서는 1리터당 10.5 km인데 비해, 80 km/h에서는 그보다 50%가 높은 1리터당 16.2 km이다. 따라서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소비되는 연료비는 120 km/h일 때보다 80 km/h일 때가 $\frac{1}{3}$ 정도 더 절약된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의 속력이 증가하게 되면 자동차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공기의 저항력도 커지기 때문이다. 실험에 의하면 공기의 저항력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기에 의한 저항은 속력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속도인 80 km/h로 달릴 때보다 120 km/h로 달릴 때 공기 저항력이 2배 정도 증가하므로 연료 소비량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제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달린다고 연료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40 km/h에서 연비는 1리터당 14.5 km이기 때문이다.

(바) 아무도 그대에게 세월을 되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대를 다시 한 번 그대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이요. 인생은 처음 시작한 그대로 흘러갈 것이고, 진로를 되돌리거나 멈추지 않을 것이요. 인생은 소란도 피우지 않고, 자신의 속도를 상기시키지도 않은 채 소리 없이 흘러갈 것이요. 인생은 왕의 명령이나 백성의 호의에 의해서도 더 길어지지 않는다고. 인생은 첫날 출발한 그대로 계속해서 달릴 것이며, 어디서도 방향을 틀거나 머물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대는 분주하고 인생은 달려가고 있소.

현재의 시간은 매우 짧다오. 너무나 짧아 어떤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오. 현재는 오기도 전에 존재하기를 멈추고, 창공이나 또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천체들과 마찬가지로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분주한 자들은 너무나 짧아 잡을 수 없는 현재의 시간에만 매달리고, 그마저

도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산만한 그들에게서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린다고.

그대는 백발과 주름살만 보고 어떤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믿어서는 안 되요. 그는 오랜 산 것이 아니라 오래 생존한 것뿐이니까 말이에요. 출항하자마자 사나운 폭풍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미친 듯 불어오는 바람으로 같은 수면 위를 빙빙 돌던 사람을 긴 항해를 해냈다고 생각한다면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겠소?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많이 들까불렸던 것이요.

보시오. 가장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소리치며, 마치 신의 목소리에 영감을 얻은 듯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소.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 가련한 인간에게서 언제나 맨 먼저 도망가노라. 뭘 망설이는가?”라고 그는 말한다고. “뭘 꾸물대는가? 그대가 붙잡지 않는다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도망가리라.” 붙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망갈 것이요. 그러니 그대는 시간의 재빠름에 나만의 속도로 맞서야 하며, 언제 그칠지 모르는 급류에서 물을 떠마시듯 삶의 의미를 채워야 한다고.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40점, 530~550자]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가)에서 은유적으로 표현된 ‘호랑이의 식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40점, 530~550자]**

■ 다음의 상황에 기초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나라에 A사, B사, C사, 모두 3개의 이동통신사가 있다고 한다. A사, B사, C사의 연도별 시장점유율 및 통신사 간의 이동 비율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A사의 가입자가 다음 해 A사, B사, C사로 이동하는 비율은 각각 0.5, 0.2, 0.3이며, B사의 가입자가 다음 해 A사, B사, C사로 이동하는 비율은 각각 0.2, 0.6, 0.2이고, C사의 가입자가 다음 해 A사, B사, C사로 이동하는 비율은 각각 0.2, 0.1, 0.7이다.

※ 다음 해에 올해와 같은 이동통신사로 이동한다는 것은 같은 이동통신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전체 가입자 수와 이동 비율은 매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문제 3] 올해 A사, B사, C사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30%, 50%, 20%일 때, 2년 후 C사의 시장점유율을 예측하고, 그 과정을 기술하시오. [20점]

- 끝 -